

집단상벌점제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the Collective Reward and Punishment Marks System on Children's Adaptation to School -Focusing on the Primary-school Children in the upper Grades-

이현숙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Hyun-Sook Lee(child77@seoul.go.kr)

요약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체벌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상벌점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대체체벌로서의 상벌점제 역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개인적 상벌점 제도를 개인이 아닌 집단에 적용하여, 새로운 대체체벌인 집단상벌점제에 대한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벌점제는 학교적응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대상자 특성별로 파악하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학년의 경우에는 학교적응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나 5, 6학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보다는 하위권인 학생의 경우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집단상벌점제의 효과성을 유의하여 프로그램 적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중심어 : | 집단 상벌점제 | 학교적응 | 대체체벌 | 학교생활 |

Abstract

A number of schools have introduced the Reward and Punishment Mark System. It has been applied to children at school in order to minimize the ill effects that are often caused by physical punishment. In this case, teachers have caused problematic issues in the course of student life guidance at school. However, the application of the personal Reward and Punishment Mark System raises many other questions as well. Accordingly, there is the necessity of making up for its weak points on the systematic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ffect of the Collective Reward and Punishment Mark System, as a substitute punishment to the physical punishment, applying the reward and punishment mark system not to an individual but to a group. The Collective Reward and Punishment Mark System for the upper grade students of primary schools showed a positive effect which assists their adaptation to school. To put it more concretely, according to the characters of the study subjects, the system has proved that boy students are more positively affected than girl students. It has been also revealed that those students in the fourth grade experience a positive change in all areas of the adaptation to school, while those in the fifth and the sixth grade were negatively affected. Moreover, those who hold a lower rank in respect of grade achievement experienced a more positive change than those standing among a high rank. It is expected that the Effect of the Collective Reward and Punishment Marks System, on the basis of the study, possesses affirmative intervention on the field.

■ keyword : | the Collective Reward and Punishment Mark System | Adaptation to School | Supplant Punishment | School Life |

I. 서론

현대사회에서 가정에서의 교육보다 학교 교육이 중심이 됨에 따라 사회는 교사와 학생의 역할수행에 높은 기대를 하게 된다. 특히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인격형성 및 기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기에 초등학교 교사의 생활지도 역할은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교사들은 학생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시, ‘훈육’이나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종종 신체적 체벌을 사용하게 된다.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체벌은 교사, 학생, 학부모간의 심리적 갈등과 때로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 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체벌을 가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감정이 실리게 되는데 바로 이점이 체벌을 가하는 교사도, 체벌을 당하는 학생에게도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체벌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은 아동·청소년기에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손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비행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1].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생존권·보호권(2009) 조사 결과에서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조사한 결과 교사로부터 신체적 체벌을 경험한 학생이 25.4%의 빈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듯 2011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1 초등장학계획’에서 초등학교 혁신의 8개 문항 중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혁신과제로 내세웠다. 이에 초등학교 내 ‘학생인권복지팀’을 설치·운영하고, 체벌 없는 학교를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보급하겠다고 밝혔다[2].

체벌에 대한 금지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에 대한 대체체벌로서 상벌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유상희(2003)는 초·중등학교 각 군 사관학교 등 일선 기관에서 학생들의 인격이 존중되는 새로운 차원의 생활지도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생활지도과정에서 체벌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함에 따라 상벌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한다[3].

하지만 대체체벌로서의 상벌점제가 시행되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참고육

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에서는 2009년 ‘상벌점제에 대한 기초 자료 모음집’을 통해 현 상벌점제 시행은 선도규정의 무리한 적용과 상벌점 기준표의 추상성, 비민주성, 비일관성, 비균형성 등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상벌점제가 갖는 합리성, 체벌의 대체화는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 시행에 있는 상벌점제는 과도기적 형태를 가지며 이에 따른 여러 제도적 보완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체체벌로서의 상벌점제를 개인에서 집단상황으로 설정하였다. 집단 상벌점제는 기존의 개인적 상벌점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체체벌의 한 형태로서, 기존에 개인에게 부여되던 상벌점을 학생 개인이 아닌 학생들 집단에 적용하는 것이다.

집단 상벌점제는 이전의 제도적 문제점인 무리한 규정과, 비민주성, 비균형성 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학생 개인들이 벌점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개인들에게 상점과 벌점이 주어졌을 때 전체 학생들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개인적인 성과만족 문제나 차별 등의 부정적 영향을 집단의의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집단에서의 상벌점제는 개인의 책임을 넘어선 집단에 대한 책임 문제로 확대되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집단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한 동기를 유발시키고, 집단원들끼리 협동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대체체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체체벌로서의 집단상벌점제가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논의

1. 집단상벌점제

집상벌점제는 ‘그린 마일리지제도’라고도 하며, 교육공동체에 의해 개정된 생활규칙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칭찬할만한 일을 한 학생에게는 상점을, 위반사항에는

별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일관된 상·별점 기준에 따라 상·별점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일정 점수가 누적되면 학생지도를 위하여 인성교육을 시켜 별점을 상쇄하도록 할 수 있다. 별점 누적관리는 당해 학년으로 하고, 학생선도 규정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4].

상별점제는 체벌을 지양하고 학생들에 대한 소정의 상점과 별점을 적용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생활지도를 하는 것이다. 상점제도에 의한 표창을 통하여 성취동기를 강화하고 별점제도에 의한 처벌강화로 행동수정을 빠르게 하여 바른생활을 몸에 배게 한다[5]. 기존의 상별점제의 시행은 학칙에 규정된 징계 이하의 생활지도를 위한 방안으로 운영되나, 그 누적 별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학칙에 의해 별도의 징계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3].

상별점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정과제인 '법과 규칙이 살아있는 학교문화'를 구현함에 있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학칙 준수 등의 공공의식을 생활화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또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문화적 기반을 조성한다. 상별점제도의 긍정적인 결과로 학생지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체벌을 금지하면서 학생들의 긍정적 행동은 상점의 누적을 통해 강화시키고, 부정적 행동은 별점의 누적을 통해 교정해 나가는 목적을 갖는다.

상별점제가 도입된 이후 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별점 처리 전산시스템 구축[6][7]과 상별점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 연구[8][9], 상별점제의 효과[10] 연구주제로 한정되어 있으며 다른 연구주제에 비해 연구결과물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별점제는 그 운영상의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상별점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별점(過罰點) 학생에 대한 학교의 조치 문제이다. 과별점 학생에 대해서는 자신의 별점을 수습할 기회보다는 더욱 엄중한 징계의 조치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에게 상별점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별점이 누락되어 과별점 학생들이 다수의 징계처리를 받게 되고, 이것은 일종의 '낙인'이 되는 위험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별점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적인 상별점제가 아닌 집단 상별점제를 시행하고자 한다. 집단 상별점제의 경우 개인에게 찍히는 '낙인'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수 있으며, 비민주성, 비균형성 등의 문제를 집단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공공의식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 및 책임감 등의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집단상별점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 처치를 한다. 각 학년별(4-6학년) 실험집단 2개 학급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매일 학급 내에 비치되어 있는 생활지도부 수집 상자를 확인·기록하고, 학생들의 행동에 변화가 있는지 지도 관찰한다. 학급 내 학생들을 일정한 수(약 5-6명)로 나누어 집단을 형성토록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상별점지도 카드를 작성, 해당 학생에게 확인시킨 후 자필 서명을 받아 1부는 담임교사에게, 1부는 학급 내 생활지도부 수집 상자에 넣어 적용한다. 형성된 집단 내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행위를 하면 집단 학생 모두가 개인 상점지도 카드에 그 덕목을 적고 상점을 부여하게 되며, 위반 항목에 대해서는 별점을 부과하여 관리한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토큰강화방법이 있다, 이는, 행동수정을 위한 강화자극으로 돈을 이용하여 학생을 지도할 수 없으므로 특정한 상표를 사용하여 후에 음식이나 구체적인 보상물과 바꿀 수 있도록 하면 효과가 있다. 이때 사용되는 징표를 토큰(token)이라 하며,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토큰을 조건부로 제공하여 강화하는 방법을 토큰강화라고 한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행동변화전략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점수카드, 마크 등으로 돈처럼 교환가치가 부여될 때 강화자극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는 부적응 학생의 개인적 지도와 소그룹 또는 한 학급의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11]. 토큰강화기법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에 대하여 기술하면서 대상 학생의 행동이 개선되어 나아감에 따라 다양한 후속 강화물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12]. 또한 자극과 반응간의 관계를 연구한 학습이론이 있다. 학습이론은 아동발달에서 생물학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을 강조한다. 학습이론에서 이렇게 아동발달을 이

해함에 있어서 직접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행동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13]. 이런 의미에서 학습이론을 행동주의라고도 한다[14]. 학습이론가들은 아동의 행동의 결과나 아동이 관찰하는 모델은 아동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2. 학교적응

2.1 학교적응의 개념

아동에게 학교생활은 가정에서 사회로 첫발을 내딛게 되는 새로운 장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빠르게 적응토록 힘을 길러 나가는 중요한 역할수행기이다. 학교는 지식습득을 위한 교과교육과 함께 집단생활을 통한 규칙의 수용, 교사나 또래와의 대면과 활동을 통해 인간관계 훈련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학교교육의 목적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여 자기능력을 충분히 발휘, 보다 행복하고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15]. 김옥분(2002)은 학교교육이 사회적으로 동화하고 적응성을 지니는 인격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16].

학교적응이란 학생들이 학교의 수업과정과 상황에서 지적·정의적·심리/운동적 발달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교육적 여건을 자신들의 요구에 알맞게 변화시키거나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에서의 모든 여건을 바르게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17].

민영순(1995)은 학교적응을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대인관계나 학교의 규칙, 질서 등에 있어서 적절하고 조화 있는 행동을 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라고 하였다[18].

Ladd는 학교적응을 학교 환경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감정에 초점을 두고 아동이 학교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편안해하고, 성공하게 되는 정도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적응의 각 영역은 이후의 아동의 교육적 진보에 중요한 전조가 된다고 한다[19]. 차유림(2000)은 학교적응을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를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 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 환경과 개인 사

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20]. 이에 비해 장호성(1987)은 아동이 지적, 도덕적 성장을 위해 교육적인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학교적응이라고 정의하여, 학생의 학습 참여도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었다[21]. 이경아와 정현희(1999)는 그동안 우리사회는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안에서 학업 성취도가 학교적응의 중요한 지표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 들어 학교성적 뿐 아니라 자기존중감과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와 같은 심리사회적 변인이 학교적응에 있어서 점차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22].

2.2 학교적응의 구성요소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한 선행연구 중에서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이상필(1990)은 담임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관계, 학교행사관계로 보았으며[23], 김용래(1993)는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으로 구성하였다[24]. 또한 이영재(1989)는 취미 및 특기, 학업관계,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행정에 대한 태도, 학교환경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였고[25], 유윤희(1994)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으로 구성하고 있다[26].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바와 같이 각 하위요인의 내용들이 거의 비슷함을 볼 수 있었다.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은 대체로 교사에 대한 적응, 친구에 대한 적응, 학업에 대한 적응, 학교행사에 대한 적응,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 학교에 대한 일반적 적응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이란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에 개인과 학교 환경 사이에서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로 보았으며, 김용래(1993)의 연구에서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으로 구성된 학교적응척도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으며, 연구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집단 상별점제 실행 여부에 대한 학 생들의 학교적응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실험 집단을 설 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을 각 각 실험 집단으로 설정한 후, 집단 상별점제 실험에 들 어가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개발한 설문지를 통해 사전 검사(pre-test)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실험집단 은 집단 상별점제 실험을 처치하고 매일 기록한다. 실험조사기간이 종료되면 사전검사와 같은 양식의 사후 검사를 실시한다. 사전검사는 집단 상·별점제 실험처 치 후의 사후조사와의 비교를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성별, 학 년, 학교성적)에 따른 실험 전·후를 비교해보고자 하 였으며, 가족관계와 형제순위는 최근 핵가족화 경향에 따라 실험 전·후 비교에서 제외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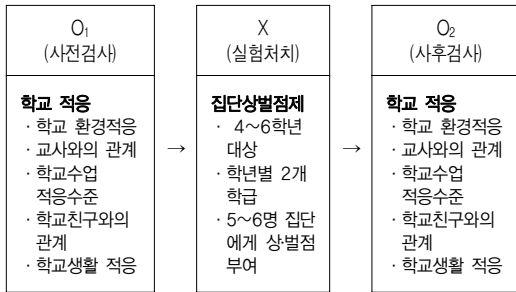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집단상별점제는 학교환경적응을 강화시킬 것이다.
- 가설 2. 집단상별점제는 교사와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 가설 3. 집단상별점제는 학교수업적응을 강화시킬 것이다.
- 가설 4. 집단상별점제는 학교친구와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가설 5. 집단상별점제는 학교생활적응을 강화시킬 것이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OO초등학교 1 개 교의 초등학교 4, 5, 6학년 중 각 학년 당 2개 학급을 임의로 표집 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표본의 크기는 181 개이다. 전체 실험 대상 181부 설문지 중 181부의 설문 지가 회수되어 100%의 회수율을 보였다.

면접조사를 위한 과정에서는 연구자가 각 그룹별 해당 학년 교실에 방문하여 표본에 추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급 방문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 수업의 담당 교사에게 조사 양해를 구하고, 연구자가 직접 학급에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취지 등을 설명한 후 학생들의 자기 기입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학생들의 하계방학 및 학교 측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2011년 4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약 4개 월간 조사가 이루어졌다.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질문지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제작은 기존 의 선행연구에서 상별점제를 통한 학교적응을 측정하 기 위해 개발한 설문지 등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도 구로 효과가 있는 선행연구를 참조, 김용래(1993)가 학 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 며, 김용래(1993)가 개발한 척도에는 [표 1]과 같이 학 교환경적응(10문항), 학교교사적응(10문항), 학교수업 적응(8문항), 학교친구적응(7문항), 학교생활적응(6문 항)의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총 문항은 41문항이며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적응 척도 의 전체 신뢰도,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표 1. 학교적응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 변인 | 문항 수 | 문항번호 | 사 전 | 사 후 | |
|---------|---------|------|------------------------------|---------------------|-------|
| | | | Cronbach's α | Cronbach's α | |
| 하위 변인 | 학교환경 적응 | 10 | 5,7,9,10,11,12,13,14,15,16 | 0.924 | 0.922 |
| | 학교교사 적응 | 10 | 4,24,25,26,27,28,29,30,31,32 | 0.899 | 0.899 |
| | 학교수업 적응 | 8 | 33,34,35,37,38,39,40,41 | 0.884 | 0.856 |
| | 학교친구 적응 | 7 | 17,18,19,20,21,22,23 | 0.880 | 0.864 |
| | 학교생활 적응 | 6 | 1,2,3,6,8,36 | 0.808 | 0.767 |
| 전체 학교적응 | 41 | | 0.962 | 0.955 | |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집단상벌점제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아울러 성별(남학생과 여학생), 학년(4학년, 5학년, 6학년), 학교성적(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에 따라 이러한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pc 18.0 사회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집단상벌점제 실시전과 후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연구 조사대상자 181명중 남자는 87명, 여자는 94명으로 여자가 많았으며 학년으로는 4학년 58명, 5학년 66명, 6학년 57명으로 5학년이 가장 많았다. 가족관계는 중복응답 처리되었으며 부는 167명, 모는 168명, 조부는 10명, 조모는 24명, 고모 또는 이모는 4명, 삼촌은 9명, 기타 118명이었다. 형제순위로는 첫째가 60명, 중간이 28명, 막내가 75명, 외동이 18명으로 막내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학교성적으로는 상위권이 42명, 중간정도가

121명, 하위권이 18명으로 중간정도 성적을 받는 아동이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항목 | 구분 | 빈도 | 백분율(%) |
|------|----------|-----|--------|
| 성별 | 남자 | 87 | 48.1 |
| | 여자 | 94 | 51.9 |
| 계 | | 181 | 100.0 |
| 학년 | 4학년 | 58 | 32.0 |
| | 5학년 | 66 | 36.5 |
| | 6학년 | 57 | 31.5 |
| 계 | | 181 | 100.0 |
| 가족관계 | 부 | 167 | 33.4 |
| | 모 | 168 | 33.6 |
| | 조부 | 10 | 2.0 |
| | 조모 | 24 | 4.8 |
| | 고모 또는 이모 | 4 | 0.8 |
| | 삼촌 | 9 | 1.8 |
| | 기타 | 118 | 23.6 |
| 계 | | 500 | 100.0 |
| 형제순위 | 첫째 | 60 | 33.1 |
| | 중간 | 28 | 15.5 |
| | 막내 | 75 | 41.4 |
| | 외동 | 18 | 9.9 |
| 계 | | 181 | 100.0 |
| 학교성적 | 상위권 | 42 | 23.2 |
| | 중간정도 | 121 | 66.9 |
| | 하위권 | 18 | 9.9 |
| 계 | | 181 | 100.0 |

2. 집단상벌점제 실험 전후 학교적응 평균비교

집단상벌점제 프로그램이 학교적응에 미친 효과성은 아래 [표 3]과 같다. 학교적응 관련 변수 중 학교교사적응 변수만 사전 사후 변화가 없으며 다른 변수는 긍정적인 변화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상벌점제는 학교 환경에의 적응, 학교수업에의 적응, 학교생활에의 적응, 학교 친구와의 관계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교사와의 관계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상벌점제가 교사와의 직접적인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일반 학교적응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학교적응 관련 변수에 대한 실험 전후 평균 비교

| 전체 | | N | M | SD | t |
|----------|----|-----|------|------|---------|
| 학교 환경 적응 | 사전 | 181 | 2.28 | 0.75 | -1.815* |
| | 사후 | 181 | 2.43 | 0.75 | |
| 학교 교사 적응 | 사전 | 181 | 2.46 | 0.78 | 0.395 |
| | 사후 | 181 | 2.42 | 0.77 | |
| 학교 수업 적응 | 사전 | 181 | 2.58 | 0.77 | -0.511 |
| | 사후 | 181 | 2.62 | 0.72 | |
| 학교 친구 적응 | 사전 | 181 | 2.46 | 0.75 | -1.391 |
| | 사후 | 181 | 2.57 | 0.74 | |
| 학교 생활 적응 | 사전 | 181 | 2.30 | 0.65 | -1.843* |
| | 사후 | 181 | 2.43 | 0.61 | |
| 전체 학교 적응 | 사전 | 181 | 2.42 | 0.63 | -1.196 |
| | 사후 | 181 | 2.49 | 0.59 | |

** p< 0.05, * p< 0.1

2.1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 관련 변수에 대한 실험 전후 평균비교

남학생의 경우에는 [표 4]와 같이, 여학생의 경우에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관련 변수에 대한 연구결과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학교적응 관련 모든 변수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환경, 학교친구,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고 교사적응, 수업적응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남학생의 학교적응 관련 변수에 대한 실험 전후 평균 비교

| 남학생 | | N | M | SD | t |
|----------|----|----|------|------|----------|
| 학교 환경 적응 | 사전 | 87 | 2.26 | 0.78 | -2.036** |
| | 사후 | 87 | 2.49 | 0.80 | |
| 학교 교사 적응 | 사전 | 87 | 2.44 | 0.79 | -0.996 |
| | 사후 | 87 | 2.56 | 0.87 | |
| 학교 수업 적응 | 사전 | 87 | 2.60 | 0.75 | -0.906 |
| | 사후 | 87 | 2.70 | 0.76 | |
| 학교 친구 적응 | 사전 | 87 | 2.46 | 0.82 | -1.603 |
| | 사후 | 87 | 2.63 | 0.73 | |
| 학교 생활 적응 | 사전 | 87 | 2.35 | 0.69 | -1.651 |
| | 사후 | 87 | 2.51 | 0.64 | |
| 전체 학교 적응 | 사전 | 87 | 2.42 | 0.65 | -1.781* |
| | 사후 | 87 | 2.58 | 0.63 | |

*** p< 0.01, ** p< 0.05, * p< 0.1

표 5. 여학생의 학교적응 관련 변수에 대한 실험 전 후 평균 비교

| 여학생 | | N | M | SD | t |
|----------|----|----|------|------|--------|
| 학교 환경 적응 | 사전 | 94 | 2.29 | 0.74 | -0.646 |
| | 사후 | 94 | 2.37 | 0.70 | |
| 학교 교사 적응 | 사전 | 94 | 2.47 | 0.78 | 1.444 |
| | 사후 | 94 | 2.30 | 0.64 | |
| 학교 수업 적응 | 사전 | 94 | 2.57 | 0.80 | 0.133 |
| | 사후 | 94 | 2.55 | 0.67 | |
| 학교 친구 적응 | 사전 | 94 | 2.46 | 0.68 | -0.399 |
| | 사후 | 94 | 2.50 | 0.75 | |
| 학교 생활 적응 | 사전 | 94 | 2.26 | 0.62 | -0.990 |
| | 사후 | 94 | 2.35 | 0.58 | |
| 전체 학교 적응 | 사전 | 94 | 2.41 | 0.61 | -0.069 |
| | 사후 | 94 | 2.42 | 0.54 | |

*** p< 0.01, ** p< 0.05, * p< 0.1

2.2 학년에 따른 학교적응 관련 변수에 대한 실험 전후 평균비교

초등학교 4, 5, 6학년에 따른 학교적응 관련 집단상별 접제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아래 [표 6][표 7][표 8]과 같이 나타났다.

표 6. 4학년 대상 학교적응 관련 변수에 대한 실험 전후 평균비교

| 4학년 | | N | M | SD | t |
|----------|----|----|------|------|-----------|
| 학교 환경 적응 | 사전 | 58 | 2.08 | 0.69 | -5.304*** |
| | 사후 | 58 | 2.68 | 0.63 | |
| 학교 교사 적응 | 사전 | 58 | 2.37 | 0.79 | -1.865* |
| | 사후 | 58 | 2.61 | 0.82 | |
| 학교 수업 적응 | 사전 | 58 | 2.46 | 0.78 | -1.903* |
| | 사후 | 58 | 2.69 | 0.66 | |
| 학교 친구 적응 | 사전 | 58 | 2.44 | 0.82 | -3.048*** |
| | 사후 | 58 | 2.80 | 0.57 | |
| 학교 생활 적응 | 사전 | 58 | 2.16 | 0.66 | -4.226*** |
| | 사후 | 58 | 2.61 | 0.47 | |
| 전체 학교 적응 | 사전 | 58 | 2.30 | 0.66 | -3.820*** |
| | 사후 | 58 | 2.68 | 0.46 | |

** p< 0.05, * p< 0.1

표 7. 5학년 대상 학교 적응 관련 변수에 대한 실험 전후 평균비교

| 5학년 | | N | M | SD | t |
|----------|----|----|------|------|-------|
| 학교 환경 적응 | 사전 | 66 | 2.27 | 0.74 | 0.576 |
| | 사후 | 66 | 2.19 | 0.73 | |
| 학교 교사 적응 | 사전 | 66 | 2.43 | 0.76 | 1.526 |
| | 사후 | 66 | 2.24 | 0.64 | |
| 학교 수업 적응 | 사전 | 66 | 2.60 | 0.81 | 0.857 |
| | 사후 | 66 | 2.48 | 0.70 | |
| 학교 친구 적응 | 사전 | 66 | 2.47 | 0.72 | 0.693 |
| | 사후 | 66 | 2.38 | 0.80 | |
| 학교 생활 적응 | 사전 | 66 | 2.27 | 0.58 | 0.284 |
| | 사후 | 66 | 2.24 | 0.64 | |
| 전체 학교 적응 | 사전 | 66 | 2.41 | 0.57 | 1.005 |
| | 사후 | 66 | 2.31 | 0.58 | |

** p< 0.05, * p< 0.1

표 8. 6학년 대상 학교적응 관련 변수에 대한 실험 전후 평균비교

| 6학년 | | N | M | SD | t |
|----------|----|----|------|------|--------|
| 학교 환경 적응 | 사전 | 57 | 2.50 | 0.78 | 0.303 |
| | 사후 | 57 | 2.45 | 0.81 | |
| 학교 교사 적응 | 사전 | 57 | 2.58 | 0.80 | 0.733 |
| | 사후 | 57 | 2.46 | 0.82 | |
| 학교 수업 적응 | 사전 | 57 | 2.68 | 0.72 | -0.276 |
| | 사후 | 57 | 2.72 | 0.77 | |
| 학교 친구 적응 | 사전 | 57 | 2.47 | 0.71 | -0.448 |
| | 사후 | 57 | 2.54 | 0.76 | |
| 학교 생활 적응 | 사전 | 57 | 2.49 | 0.69 | 0.239 |
| | 사후 | 57 | 2.46 | 0.65 | |
| 전체 학교 적응 | 사전 | 57 | 2.54 | 0.64 | 0.148 |
| | 사후 | 57 | 2.52 | 0.65 | |

** p< 0.05, * p< 0.1

위의 결과를 볼 때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벌점제는 학교적응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학년의 경우에는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6학년의 경우에는 학교수업과 친구적응을 제외한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3 학교성적에 따른 학교적응 관련 변수에 대한 실험 전후 평균비교

학교 성적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적응 관련 집단상벌점제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아래 [표 9][표 10][표 11]과 같다.

아래의 결과를 볼 때 상위권보다는 하위권의 학생들이 더 많은 학교적응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하위권의 학생들이 보다 집단상벌점제에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상위권 학생대상 학교적응 관련 변수에 대한 실험 전후 평균비교

| 상위권 | | N | M | SD | t |
|----------|----|----|------|------|--------|
| 학교 환경 적응 | 사전 | 42 | 2.28 | 0.80 | -0.078 |
| | 사후 | 42 | 2.29 | 0.74 | |
| 학교 교사 적응 | 사전 | 42 | 2.49 | 0.93 | 0.358 |
| | 사후 | 42 | 2.41 | 0.67 | |
| 학교 수업 적응 | 사전 | 42 | 2.46 | 0.88 | -0.346 |
| | 사후 | 42 | 2.52 | 0.74 | |
| 학교 친구 적응 | 사전 | 42 | 2.40 | 0.79 | -0.184 |
| | 사후 | 42 | 2.44 | 0.84 | |
| 학교 생활 적응 | 사전 | 42 | 2.23 | 0.64 | -1.436 |
| | 사후 | 42 | 2.44 | 0.73 | |
| 전체 학교 적응 | 사전 | 42 | 2.37 | 0.66 | -0.332 |
| | 사후 | 42 | 2.42 | 0.62 | |

*** p< 0.01, ** p< 0.05, * p< 0.1

표 10. 중위권 학생 대상 학교적응 변수에 대한 실험 전후 평균비교

| 중위권 | | N | M | SD | t |
|----------|----|-----|------|------|---------|
| 학교 환경 적응 | 사전 | 121 | 2.28 | 0.74 | -1.944* |
| | 사후 | 121 | 2.47 | 0.76 | |
| 학교 교사 적응 | 사전 | 121 | 2.45 | 0.70 | 0.098 |
| | 사후 | 121 | 2.45 | 0.81 | |
| 학교 수업 적응 | 사전 | 121 | 2.61 | 0.71 | -0.347 |
| | 사후 | 121 | 2.64 | 0.71 | |
| 학교 친구 적응 | 사전 | 121 | 2.50 | 0.73 | -1.188 |
| | 사후 | 121 | 2.60 | 0.68 | |
| 학교 생활 적응 | 사전 | 121 | 2.31 | 0.65 | -1.294 |
| | 사후 | 121 | 2.41 | 0.57 | |
| 전체 학교 적응 | 사전 | 121 | 2.43 | 0.60 | -1.127 |
| | 사후 | 121 | 2.51 | 0.58 | |

*** p< 0.01, ** p< 0.05, * p< 0.1

표 11. 하위권 대상 학교적응 변수에 대한 실험 전후 평균비교

| 하위권 | | N | M | SD | t |
|----------|----|----|------|------|--------|
| 학교 환경 적응 | 사전 | 18 | 2.28 | 0.75 | -0.710 |
| | 사후 | 18 | 2.46 | 0.73 | |
| 학교 교사 적응 | 사전 | 18 | 2.40 | 0.96 | 0.397 |
| | 사후 | 18 | 2.31 | 0.74 | |
| 학교 수업 적응 | 사전 | 18 | 2.67 | 0.93 | -0.157 |
| | 사후 | 18 | 2.71 | 0.74 | |
| 학교 친구 적응 | 사전 | 18 | 2.31 | 0.75 | -1.203 |
| | 사후 | 18 | 2.60 | 0.82 | |
| 학교 생활 적응 | 사전 | 18 | 2.47 | 0.71 | -0.181 |
| | 사후 | 18 | 2.51 | 0.56 | |
| 전체 학교 적응 | 사전 | 18 | 2.43 | 0.75 | -0.425 |
| | 사후 | 18 | 2.52 | 0.58 | |

*** p< 0.01, ** p< 0.05, * p< 0.1

V.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4,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단으로 상벌점제를 시행한 결과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인 초등학교 고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집단상벌점제의 연구 결과 집단상벌점제가 학교적응을 강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사적응’의 영역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외 모든 영역의 학교적응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세부 특성에 따른 연구결과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학교적응 관련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에는 ‘교사적응’, ‘수업적응’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외부평가에 더 반응을 보이는 등 집단상벌점제를 통한 학교적응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에 따른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결과 4학년

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벌점제는 학교적응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학년과 6학년 등 고학년의 경우에는 집단상벌점제가 학교적응에 효과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집단상벌점제를 통한 보상체제가 연령이 낮은 4학년 학생들의 학교라는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교 성적에 따른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상위권보다는 하위권에서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하위권의 학생들이 집단상벌점제에 보다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적 이외의 학교 생활에 대한 평가가 하위권의 학생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자극이 되어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집단상벌점제의 효과성을 유의해서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즉 집단상벌점제에 효과를 보이는 대상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5, 6학년보다는 4학년이, 그리고 상위권 보다는 하위권의 학생들이므로 이들 대상이 긍정적인 자극을 받고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집단상벌점제를 실행한다면 초등학교의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연구자 개인이 알고 있는 학교 측의 협조에 따라 일부 모집단을 임의표집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에 소재한 한 학교, 그 중에서도 일부 학년의 소수학급만을 대상으로 실험함에 따라 표집대상이 한정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제한적 해석과 이해가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설문지를 활용하여 비교집단 없이 동일집단만을 대상으로 실험전·후 비교연구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함에 따라 실험결과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 보완을 위해 비교집단을 두고 실험연구를 한다면 보다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연구를 통한 결과는 초등학교 학

생들에게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안적 처벌방법 연구 및 실행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1] 박근혜, 폭력가정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2] 모상현, 김희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생존권·보호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3] 유상희, "중등학교 생활지도를 위한 상벌점처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4] 국가인권위원회, 제3기 인권교육 시범학교 운영 보고서(2008년 3월~2010년 2월), 2010.

[5] 안순덕, 중학교 생활지도 상벌점제카드 활용이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6] 김정중, 박정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웹 기반 상벌점 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정보교육학회 논문지, 제10권, 제3호, 2006.

[7] 문창배, 김한일, "교사·학생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개방형상벌점관리시스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8권, 제12호, 2008.

[8] 최문호, 상벌점제 운영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연구: 강원도 중·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9] 임광혁, 상벌점제 시행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연구,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0] 윤점미, 고등학교 생활지도 '상벌점제'와 학생생활태도 및 학생인권존중의식의 변화,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1] 공양숙, 토론 강화가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주의집중행동증강에 미치는 효과,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2] W. S. Agras, The token economy. In W. S, Agras (ed). Behavior Modification Principles

and Clinical Applications (2nd.), Boston: Little, Brown & Co, 1978.

[13] 윤신혁, 행동주의 심리학과 도덕적 사고와 실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4] D. Nunan, Practical English Language Teaching, pp.25-26, Mc Graw Hill, 2003.

[15] 고경은,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6] 김옥분, 수업동기와 성격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분석,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7] 김용래, "학교학습동기척도와 학교적응척도의 타당성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분석", 교육연구논총, 제17권, 2000.

[18] 민영순, 가정환경 및 학급사회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19] G. W. Ladd, B. J. Kochenderfer, and C. C. Coleman,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1996.

[20] 차유림,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21] 장호성, 자아개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22] 이경아, 정현희,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논문지, 1999.

[23] 이상필, 학교생활적응수준에 따른 학업성적 및 행동특성의 차이 분석,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24] 김용래, "학업성취동기에 대한 자아개념과 불안의 효과에 관한 이론적 분석", 교육연구논총, 제3집, 1993.

[25] 이영재, 성격유형과 생활 스트레스간의 관계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26] 유윤희, 학교적응, 불안, 학업 성취간의 관계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저 자 소 개

이 현 숙(Hyun-Sook Lee)

정회원



- 2006년 8월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사)
- 현재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서울시청 여성복지팀장

<관심분야> : 복지행정, 아동복지, 지역사회복지